

패션비즈니스 제27권 4호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J. fash. bus. Vol. 27,
No. 4:1-20, Sept. 2023
[https://doi.org/
10.12940/jfb.2023.27.4.1](https://doi.org/10.12940/jfb.2023.27.4.1)

Corresponding author

Jung Soo Lee
Tel : +82-2-3277-4106
E-mail : junglee@ewha.ac.kr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의복의 수명주기 연장을 중심으로-

황보애* · 이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석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Focused on the Extension of the Use Period of Clothes-

Bo Ae Hwang* · Jung Soo Lee†

* Master's course, Dept. of Fashion Industry,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Keywords

MZ generation,
life cycle of clothing,
sustainable fashion
MZ세대, 의류수명주기,
지속가능한 패션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the practical design elements of sustainable fashion by understanding the values of the MZ generation and analyzing the design characteristics that can extend the life of clothing. The theoretical concept of sustainable fashion through previous studies was review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MZ generation on "design characteristics of clothes that they have actually used for a long time." The result was drawn by approaching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through the qualitative methodolog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clothes that can be worn for a long time are as follows. First, simple design pursues simplicity that is not excessive to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clothes. Second, sturdy material is durable and not easily damaged. The clothing storage method and laundry method were also factors that could extend the life of the garment. Third, emotional design is a design that fits well with your mood and body type and gives a special meaning to your emo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suggesting elements necessary for extending the life cycle of clothing and providing basic data that can be applied to the practical design steps of the fashion industry.

I. 서론

패션산업은 섬유 재배와 염색 및 가공에 필요한 화학약품,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합성 섬유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등 원료부터 생산, 운송, 판매, 사용, 폐기와 재고 처리에 이르는 제품의 전 라이프 사이클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 2순위로 꼽히고 있다(Michelle, 2019). 트렌드와 소비자의 기호를 발빠르게 파악하여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은 쉽게 구매하고 버려지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작물 9,200만 톤의 폐기물이 나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Why Recycling Clothes Is Difficult, 2020). 과거에 소비촉진 중심의 디자인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디자인의 흐름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구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해결방안 모색은 필수 사항이 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패션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2019년 8월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샤넬, 프라다, 나이키, 자라, H&M을 포함한 32개의 글로벌 패션 기업과 150여 개의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자연 생태계 및 해양 보호를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것을 선언했다(Kim, 2020). 지속가능성의 실천을 위해 패션산업의 공급망을 기존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서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전환에 기반을 둔 경제시스템인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초점을 맞추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패션으로 나아갈 수 있다(The Seoul Institute[TSI], 2020).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을 전개하는 것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 및 사용 후 폐기까지의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Lee, Ahn, Kim, & Seo, 2013).

기업과 디자이너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환경과 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시도하고 있다. 친환경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천연 방취 효과가 있는 메리노 울 65%와 빠른 건조와 관리하기 쉬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35%의 혼방원단으로 친환경과 기능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캐필린 클 메리노(capilene® cool merino)'를 출시하였다(Kwak, 2021). '리바이스'는 의류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의 책임을 고취시키는 'buy better, wear longer'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제품생산을

시즌 리스(seasonless)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며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제품을 좀 더 오래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Lee, 2021). 패션업계 역시 환경과 인간을 배려하는 지속가능을 실현하려 친환경 소재 개발, 재활용, 업사이클링, 지속가능 캠페인과 지자체 협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마케팅적, 소재적 측면의 제품 개발에 집중되고 있어 의복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의 관점에서 해결점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MZ세대들이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친환경,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 지속가능한 키워드들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가치부여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패션이 가지는 디자인 측면에서의 또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Ann & Joo, 2019; Jeoung, 2011; Kim & Na, 2015; Lee, 2014; Lee, Lee, & Park, 2007; Nam, 2010; Park & Kim, 2018; Yoo, 2012)를 보면 패션디자인의 이론적 고찰과 지속가능 패션을 기준으로 분석한 사례연구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향 가치별 범주를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생각을 가진 의류 회사에서의 디자인 관행과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한 혼합 방법 연구(Karell & Niinimäki, 2020),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진정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Oh, 2021)와 같은 기업과 디자이너의 역할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는 연구들이 나왔지만, 의복의 수명주기를 늘릴 수 있는 디자인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핵심 고객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제품수명주기 관점에서 의복의 수명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특성을 밝힘으로써 지속가능한 패션의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줄이는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패션의 이론적 개념 고찰과 MZ세대를 대상으로 '본인이 오래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특징'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디자인 측면에서 의복의 수명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요소를 제안하고 지속가능을 실천하는 패션산업의 실무적 디자인 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함에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의 수명주기 연장

지속가능한 패션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수명주기 연장을

지향하며 좋은 품질의 제품은 오래 사용하며 유지하고, 더 이상 필요치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됨으로써 느린 패션 사이클(slow fashion cycle)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TSI, 2020). 또한 제품의 원재료부터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는 제품수명주기(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의 모든 단계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Chun, Han, & Ko, 2018).

세계 의류시장의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약 2배 증가했으며 사람들은 2000년 보다 2014년에 60% 더 많은 의류를 구매했지만 옷을 사용하고 보관하는 기간은 절반에 불과하며 매년 전체의 85%가 폐기되고 있다(McFall-Johnsen, 2020). 의류 구매와 폐기가 정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의류 폐기를 해결을 위해 패션제품을 지속가능한 재료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 전 신중하고 고려 후 선택이 필요하며 한 번 구매한 제품은 오래도록 사용하려는 지속가능한 실천행동이 중요하다.

의복에는 평균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인 내용연수가 있다. 의류 품목별 내용연수란 착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폐기할 때까지의 추정연수로 의류의 수명을 말한다(Kang, 2014). 공정거래위원회의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에 따르면 코트는 4년, 점퍼, 자켓, 바지는 하복 3년, 춘추복·동복 4년, 셔츠는 2년, 스웨터는 3년, 청바지는 4년, 피혁제품은 3년으로 고시되어 있다(Fair Trade Commission[FTC], 2020). 그러나 각 의류의 소재와 가공 방식, 소비자의 착용, 세탁, 보관 등에 따라 다르게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내용연수만큼 착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Kim(2018)는 수명주기 단계별 의복지속가능 평가 항목을 구축하여 실생활에서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의복의 수명주기를 제품화, 사용, 처분의 세 범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착용 범주의 사용단계에서 보유한 의복을 오랜 기간 착용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한 의복의 활용도를 높여 착용 횟수를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한 실천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의류 품목별 내용연수를 참고하여 '오래 착용한 의복'에서 '오래'라는 기간은 아우터와 바지는 4년 이상, 셔츠는 2년 이상, 스웨터는 3년 이상, 피혁제품은 3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착용기간은 의복을 물려 입는 경우 5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시절 구입하여 지금까지 입는다면 10년이 될 수도 있듯이 사람마다 오래 입는 기간은 각자 다르

다. 본 연구에서는 '오래'라는 기간에 대해 개개인에 따라 다소 주관적인 관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2. 지속가능한 패션의 개념 및 MZ세대의 가치관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의 개념은 생애 디자인, 그린 디자인 등의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의 목적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비용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디자인 접근법이다(Oh, 2005). 지속가능한 패션이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자원의 재생 순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패션디자인이다(Yoo, 2012). 단순히 환경에 중점을 두었던 이전 친환경 패션 디자인의 개념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은 제품의 기획, 재료, 생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책임감 있는 제품을 말하며 패션의 사회적 의미에 중점을 둔다(Nam, 2010).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TBL(triple bottom line)인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관점의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프로세스가 되어야 지속가능한 패션이 완성될 수 있다(TSI, 2020).

일반적으로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한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와 1996년 이후부터 2010년 초반까지 출생한 Z(generation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SNS를 기반으로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University Tomorrow Research Laboratory for the Twenties, 2021). 자신의 생각이나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중시하며 추구하는 가치도 뚜렷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MZ세대 380명을 대상으로 ESG 경영과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MZ세대는 가격보다는 제품이 어떤 재료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지구환경에 보탬이 되는 가치에 중점을 둔 소비성향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2022). '가치 소비(value conscious consumption)'는 본인의 가치판단에 맞는 제품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방식이다(Kcc webzine, 2021).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소비로 표현하는 MZ세대에게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은 살아감에 있어 당연히 지향해야 할 문화로 자리잡았다. 현재의 일상을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가치 소비하는 이들의 특성은 친환경, 지속가능한 소재와 디자인, 공정한 제작방식을 담은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속성과 잘 연결되어 있다.

3. 지속가능한 패션의 특성

패션디자인 분야의 다수 선행연구에서 지속가능한 패션과 디자인의 특성은 에코 패션, 친환경 패션, 슬로 패션, 컨서스 패션 등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각각의 특성이 다른 관점으로 연구되어왔다. Nam(2010)은 지속가능한 제품 원료의 구입과 사용, 판매의 전 과정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특성을 친환경 소재 활용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 친환경 캠페인 디자인, 공정무역을 의한 디자인으로 제시하였다. Lee et al.(2007)는 패션에 나타난 느린 디자인의 특성을 timeless style, hand-touch design, renewable design, transformable design으로 분류하였다. 영원한 스타일(timeless style)은 시대적 감각의 흐름과 유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 디자인으로 클래식 스타일이나 미니멀한 실루엣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공예적 디자인(hand-touch design)은 수공예적인 요소를 포함한 디자인을 의미하며, 재생가능 디자인(renewable design)은 리사이클링(recycling) 패션과 유사한 개념으로 재사용을 통한 디자인의 재창조를 의미한다. 변형가능 디자인(transformable design)은 사용 목적에 따라 형태의 변형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패션이다. Du and Kim(2021)은 지속가능한 패션을 융합적 리디자인 관점에서 마린 세르의 디자인 특성을 리사이클, 리유즈, 리듀스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Kook(2014)은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 원단 폐기물을 생성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개념에 입각하여 패션디자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Park and Kim(2018)는 국내·외 업사이클링 디자인 브랜드의 사례분석을 통해 업사이클링 디자인 특성을 폐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예술성, 수공예적 희소성, 원품의 고유한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친환경적인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성으로 제안하였다. Kim(2002)는 느리게 살기의 영향을 받은 패션 디자인 분석을 옷을 만드는 데 소요된 노동과 필요한 만큼 투자된 시간에 가치를 부여하여 숙련된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가진 수공예적 디자인, 공들이 만들어진 디자인으로 분류하였다. Lee(2014)는 지속가능한 개념 안에서 트렌드나 시대적 흐름을 크게 따르지 않고 착용자와 교감을 나누며 의복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디자인으로, 그 특별함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 감성적 디

자인을 제안하였다. Kim and Na(2015)은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해 환경적 친화성을 강조한 리디자인 패션, 빈티지 패션, 오가닉 패션, 배건 패션과 경제적 지속성을 강조한 가변적 패션, 감각 패션과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한 윤리적 슬로건 패션을 제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지속가능한 패션의 특성은 친환경 소재 활용 디자인, 재생 가능한(리디자인,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희소성을 지닌 수공예적 디자인, 유행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디자인, 변형 가능한 다기능성 디자인, 특별한 의미를 주는 감성적 디자인, 윤리적 슬로건 디자인 총 여덟 가지 맥락으로 정리되었다. 선행연구는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III. 연구 방법 및 대상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정의와 디자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본인이 오래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디자인적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실제로 의복을 착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의복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반연구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패션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개념과 디자인 특성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방법의 반복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으로 질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사회현상 혹은 사회적 현상의 참여자들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해석학적 입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자들이 해석하는 현상의 의미를 맥락과 연관시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Yoo, Jeong, Kim, & Kim, 2018).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정의와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본인이 오래 착용한 의복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서 획득한 실증적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언어적 표현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여 그 의미해석을 통해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 점이 질적연구방법의 철학 및 특징과 일치하기에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실제로 오래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디자인

Researcher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in Previous Studies	Reunion of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in This Study
Kim(2002)	Handcraft design	Design using eco-friendly materials Organic fashion Vegan fashion	Design using eco-friendly materials
Lee et al.(2007)	Timeless style Hand-touch style Renewable design Transformable design		
Nam(2010)	Design using eco-friendly materials Recycling design Fabric waste minimization design	Renewable design Recycling design Redesign fashion Recycling, Reuse, Reduce Upcycling design	Renewable design
	High quality hand-touch slow fashion Multi-functional design Eco-friendly campaign design Design by fair trade	Fabric waste minimization design Zero waste design Reduce fashion	Zero waste design
Kook(2014)	Zero waste design	High quality hand-touch slow fashion Handcraft design Hand-touch style	Hand-touch design
Lee(2014)	Emotional design	Timeless style Vintage fashion	Timeless design
Kim & Na(2015)	Redesign fashion Vintage fashion Organic fashion Vegan fashion	Multi-functional design Transformable fashion Transformable design	Transformable design
	Transformable fashion Reduce fashion Ethical slogan fashion	Emotional design	Emotional design
Park & Kim(2018)	Upcycling design	Ethical slogan fashion Eco-friendly campaign design	Ethical slogan fashion
Du & Kim(2021)	Recycling, Reuse, Reduce	Design by fair trade	

Figure 1.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Fashion (drawn by authors)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을 선택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는 연구 주제와 목적에 맞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폭넓고 자유로운 경험제공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질적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Yoo et al., 2018). 본 연구에서도 인터뷰 참여자가 자연스러운 일상적 조건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이야기를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은 다른 질적 연구의 자료분석법에 비해 비교적 사용이 쉽고, 다양한 질적 자료 분석 시 응용이 가능하여 질적 연구의 자료분석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Yoo et al., 2018; Kim, Park, & Kang, 2021). 질적 내용 분석은 텍스트로부터 반복 가능하고도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연구기법으로 단순하게 유사한 의미끼리 묶어 범주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내용 코딩을 통해 범주의 외연적, 내재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메시지 분석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Choi, Jung, & Jung, 2016).

본 연구에서는 Yoo et al.(2018)의 분석과정을 참고하여

Table 1. Information of the Interviewees

Interviewees	Age	Occupation
A	27	graduate school student
B	29	fashion designer
C	30	fashion designer
D	30	ceramic art designer
E	32	nursing teacher
F	34	fashion designer

개방 코딩(open coding), 범주화(categorical), 범주 확인(check categories), 서사화(narrating)의 4단계로 진행하여 자료 분석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MZ세대인 의류전문직 종사자 3명, 일반인 3명으로 총 6명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기준으로 정하였다. 의류 전문직 종사자는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의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트렌드 흐름, 균형과 여유량 등의 핏, 소재와 디자인의 적합성, 내부시양, 봉제사양, 기능 등 의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전문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기에 선정하였다. 일반인은 패션전문가는 아니지만 의복을 착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문가와는 또 다른 의류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아울러 인터뷰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서 가명을 사용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Table 1와 같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인터뷰는 20~30대 6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동안 두 번에 걸쳐 시행되었다. 1차, 2차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미리 준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그 질문을 기준으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차 인터뷰는 9가지의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지에 대한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이 정의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선호하는 지속가능한 패션브랜드에 대한 질문, 연구 참여자들이 오래 착용한 의복의 디자인적

특성에 대한 질문, 지속가능한 의류 디자인을 목표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차 인터뷰를 마치고, 5일 이후 2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차 인터뷰 질문지에 대한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로 오래 착용한 의복을 기준으로 착용 기간과 소재 혼용률, 오래 입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시간과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편의성에 따라 결정하였고 모두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빠짐없이 노트에 기록하였다. 인터뷰 내용 및 분석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점검을 거쳐 자료의 정확성을 높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개념과 본인이 오래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전반적인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는 1차 인터뷰를 마치고, 5일 이후 실제 오래 착용한 의복의 사진과 그 이유를 제안한 2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복의 수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차, 2차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Yoo et al.(2018)의 분석과정을 참고하여 주제와 연관된 단어, 문장 단위의 텍스트를 개방 코딩으로 추출하였고 이를 범주화, 범주 확인의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고 서사화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Figure 2).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개방 코딩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꾸준히 비교하면서 단순한 디자인, 견고한 소재, 감성적 디자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분석의 상위 범주로 하였다. 범주화 작업 이후 범주가 잘 구성되었는지를 개방 코딩 전 단계의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절차인 범주 확인을 거쳤다. 이때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 자료의 구분은 범주에 대한 검증이 된다(Yoo et al., 2018).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서사화의 절차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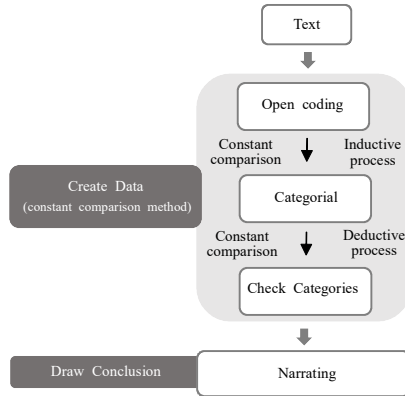


Figure 2.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Design of this Study (drawn by authors)

IV.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증적 연구

1. 1차 반구조적 인터뷰

1차 반구조적 인터뷰는 아홉 가지의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되었고 모든 응답자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6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단어 어휘를 추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연구참여자들이 정의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정의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선호하는 패션 브랜드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의류 전문 종사자와 일반인 간의 차이가 있었다. 의류 생산자이자 소비자의 입장을 지니며 의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류 전문직 종사자와 의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문가에 비해 낮지만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인 일반인 간의 지속가능한 의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연구참여자들이 정의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연구참여자들은 시대가 변해도 유행 안타는 디자인, 의복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본적인 디자인,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지고 싶고 입고 싶은 디자인, 환경문제로 인해 생겨난 개념으로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디자인, 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도록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소재, 단발성으로 소모되어 폐기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이상 기능적 활용을 하는 다기능 디자인이라고 말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배경지식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정의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개념이 다르게 나타났다. 의류 전문직 종사자인 연구참여자는 제품의 전 생산과정을 고려하였고 베이직한 디자인과 소재 이외에 다기능적 디자인, 재생산 가능한 디자인을 말하였다. 일반인 연구참여자는 오랜 시간 입을 수 있는 유행 안타는 기본적인 디자인과 재활용 가능한 디자인, 친환경적인 소재를 말하였다. 이들의 공통된 부분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바라본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타임리스 디자인, 유행을 안타는 기본 베이직한 디자인과 재생 가능한 디자인, 친환경 소재, 다기능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

연구참여자들 중 의류 전문직 종사자인 연구참여자가 B, C, F

는 지속가능한 패션브랜드에 대해 다양하게 알고 있었고 해당 브랜드가 어떠한 지속가능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인 연구참여자 A, E는 대중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브랜드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일반인 연구참여자 D는 평소에도 보세의류를 입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패션브랜드에 대해 모른다고 하였으며 브랜드 배경 지식이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서 적었다.

연구참여자 B는 버려지는 천막으로 가방을 만들어 단 하나뿐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가진 대표적인 업사이클 브랜드인 '프라이탁'을 말하였다. 프라이탁의 디자인과 마케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업사이클을 알렸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F는 100%의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과 50%이상의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바타고니아'를 말하였다. 두 브랜드 모두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브랜드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스텔라 맥카트니', 'H&M', '리얼맥코이'를 말하였다. '스텔라 맥카트니'는 익히 리사이클, 에코 디자인으로 유명한 브랜드로서 동물에서 채취한 모피, 가죽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하였다. 'H&M'은 SPA 브랜드로 환경파괴 주범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결국 가장 많이 소비하고 대중적인 브랜드라고 하였다. 따라서 리사이클링 소재 사용, 헌 옷 수거캠페인 등 대중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하였다. '리얼맥코이'는 일본 북가브랜드로 가죽을 많이 사용하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이징이 가죽 소재 의류를 더 멋드러지게 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죽 생산 시 동물이 죽음에 임박하거나 축산에서 폐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동물 복지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옷이 생산된 이후의 지속가능성만 생각하지 않고 옷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바타고니아'를 말하였다. 연구참여자 E는 친환경 소재로 의류를 만든 '지오다노'를 말하였다. 그 외로 패션브랜드는 아니지만 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재활용 가능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사례도 나타났다.

"식물을 고정하는 재활용되는 지지대 테이프를 구매한 적이 있다. 가격은 더 비쌌지만 환경에 도움이 된다 하니까 구매를 하였다."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 D는 패션브랜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

였다. 본인이 선호하는 지속가능한 패션브랜드의 질문에서 평소에도 보세의류를 즐겨 입기에 지속가능한 패션브랜드는 모른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성과 어떠한 실천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중점에 두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패션브랜드에 대해 알고 있지 않더라도 그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패션 브랜드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리디자인, 제품의 전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을 고려한 제품, 헌 옷 수거 캠페인 등을 통한 대중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문화로 만들어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2) 연구참여자들이 오래 착용한 의복의 디자인적 특성

(1) 연구참여자들이 의복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연구참여자들은 일정기간(3년) 이상 착용할 수 있는 소재의 견고함과 땀 흡수가 잘 되고 세탁조건이 간편한 소재,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기본적이고 심플한 베이직 디자인,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 신체를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옷을 착용했을 때 가장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체형에 잘 맞는 핏의 디자인, 본인의 무드와 어울림을 의복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옷이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번 사면 5년은 입는다. 세탁에서 변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세탁기인지 손빨래인지 확인 후 구매하고 디자인이 예쁘고 재질이 좋아야 한다. 쟁쟁하고 구김 없는 소재를 선호하고 예쁜 디자인인데 소재가 별로이면 안 산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물려 받았듯 후후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로망이 있다." (연구참여자 D)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무드와 일정기간(3년) 이상 입을 수 있는 소재의 견고함." (연구참여자 C)

"무난한 디자인이다. 옷을 잘 입는 편도 아니고 무난한 디자인의 제품을 하나 사면 다양한 스타일에 오래 입을 수 있다. 화려한 패턴 문양, 과한 레이스 등이 없는 베이직한 디자인." (연구참여자 E)

"요즘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 직접 만져 봐야하는 소재보다 시각적으로 먼저 보이는 디자인을 많이 보는 것 같다. 아무래도 디자인이 예뻐야 관심있게 보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옷을 사면 손길도 많이 가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B)

“키가 작기 때문에 옷의 기장이 길면 못 산다. 바지를 항상 수선해서 입었기 때문에 기장이 짧은 걸 선호한다.” (연구참여자 D)

“내 몸에 잘 맞는 핏과 사이즈, 핏은 소재이다. 내 몸의 비율에 잘 맞는 핏과 사이즈가 나를 가장 멋있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F)

이를 통해 디자인 측면에서는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과 과하지 않은 베이직한 디자인이 나타났고 소재 측면에서 세탁과 건조에도 쉽게 해지지 않고 형태변형이 적어 오래 착용할 수 있는 소재의 견고함을 중요시하였다. 더불어 본인 체형과 잘 맞는 핏과 사이즈의 의복은 체형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부각시켜 더욱 멋지게 보이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기장이 길면 본인의 기장에 맞게 수선해 입는 등 본인의 체형에 잘 맞는 핏과 사이즈를 의복 구매 시 중점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참여자들이 오래 입은 의복의 디자인적 특성 연구참여자들이 오래 입은 의복은 베이직한 디자인과 여유로운 실루엣, 본인 체형에 잘 어울리는 핏, 하나의 의복으로 다양하게 연출 가능, 무던한 색깔, 견고한 소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오래 착용한 기본 라운드넥 디자인의 니트 가디건과 과하지 않은 메쉬 조끼의 니트 폴로버 등에서 옷의 디자인 요소가 적은 기본적인 베이직한 디자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베기핏, 스키니핏이 아닌 몸에 적당히 핏되는 무난한 일자핏의 데님 바지와 오버사이즈의 기장감이 긴 직선형 실루엣의 코트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의복은 넉넉한 품으로 편안한 착용이 가능한 여유로운 실루엣을 나타냈다. 또한 본인 체형의 비율과 비슷한 비율을 가진 실루엣을 말하였다. 체형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본인 체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핏이 중요하였다.

“베이직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옷의 디자인 요소가 적은 디자인이다.” (연구참여자 F)

“중간 기장, 넉넉한 품으로 착용 가능해서 편안하다.” (연구참여자 D)

“베기핏, 부츠핏, 스키니핏 등 다양한 실루엣의 유행이 있었지만 무난한 일자핏이어서 좋다.” (연구참여자 E)

“내 몸의 비율과 비슷한 비율을 가진 실루엣이다.” (연구참여자 F)

“내 체형에 몸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핏이다. 다리가

짧은데 긴 걸 입으면 체형이 부각되니까.” (연구참여자 E)

더불어 하나의 의복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니트 폴로버가 레이어드하기 좋고 어디에나 어울려서 간편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 벌로 다양한 스타일 변형이 가능한 아이템은 여러 벌의 연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을 장기화시켜 의복 소비량과 폐기물을 절감시킬 수 있다(Kim & Na, 2015).

“나시를 입고 바로 착용가능해서 레이어드하기 좋고 간편하게 스타일을 낼 수가 있다. 비치웨어로도 좋고 어디에 입어도 어울린다.” (연구참여자 D)

이들이 오래 착용한 의복의 색깔을 살펴보면 유행에 치우치거나 강렬한 색깔이 아닌 베이지, 그레이, 베이비, 블랙 계열의 무던한 색깔이었다. 무던한 색깔은 다양한 의복에 어울리며 오래 착용할 수 있는 요소였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착용할 수 있는 높은 내구성을 지닌 고품질의 소재였다. 쉽게 해지거나 늘어지는 옷들은 아무리 디자인과 소재, 색깔 등이 아름다워도 오래 착용할 수 없기에 견고한 소재를 추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연구참여자들이 해당 의복을 오래 입은 이유 오래 입고 있는 의복으로는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디자인과 견고한 소재, 무난한 색깔, 본인의 체형과 무드에 어울리며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라운드넥 니트 가디건, 무난한 일자 핏 바지 등을 통해서 과하지 않은 베이직한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으로 니트 폴로버는 매년 여름 바다에 갈 때마다 간편하게 착용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소재의 견고함은 옷이 쉽게 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입는 것 같다고 하였다.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고 얇은 면 소재여서 자주 오래 착용할 수 있었다. 소재 구김과 색바랜 없고 한 번도 수선한 적 없는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니트는 매년 여름 바다에 갈 때마다 가지고 가서 간편하게 착용한다.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다.” (연구참여자 D)

“옷이 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입는 것 같다.”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는 면 소재여서 자주 오래 입는 것 같다.” (연구참여자 B)

“소재 구김이 없고 섹바렘과 한 번도 수선한 적이 없는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들이 오래 입은 의복의 색깔은 대체로 밝은 계열이 아닌 톤 다운된 색깔들이 주를 이루었다. 화려하거나 강렬하지 않은 무난한 색깔로 연구참여자는 데님 바지가 너무 옅은 색깔이 아닌 짙은 색깔의 데님여셔 좋다고 하였다. 연한 색깔은 오염 묻은 것이 쉽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짙은 색깔은 시각적으로 오염 보이는 정도가 덜 하고 그만큼 세탁을 덜 해도 무관함으로서 세탁으로 인한 물빠짐도 적다고 하였다. 소재의 성질과 색깔에 따른 관리, 보관, 세탁의 간편함을 추구하였다.

“데님이 너무 물 빠진 연한 칼라도 아닌 무난한 컬러이다. 연한 칼라는 더러움이 많이 묻게 될 수 있는데, 색이 진해서 오염이 덜 하고 그만큼 세탁도 덜해도 됨으로써 물빠짐도 적다.” (연구참여자 E)

또한 본인 체형에 가장 잘 맞는다는 느낌을 주는 옷을 입었을 때 체형을 보기 좋게 보여주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에 잘 맞는 의복을 말하였다. 더불어 본인의 스타일과 잘 맞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며 몸의 선예도를 살려주고 본인이 원하는 무드와 잘 맞는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상황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기본 라운드넥 가디건을 간절기용 외투로 착용하고 단독으로 입기도 하였다. 어떠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내 몸에 잘 맞는다는 느낌을 주는 옷을 입었을 때 내 체형을 보기 좋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F)

“어떠한 코디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린다.” (연구참여자 A)

“몸의 선예도를 잘 살려주는 옷이고 원하는 무드랑 잘 맞는다.” (연구참여자 C)

“코트는 내 스타일과 잘 맞고 편하게 무난하게 입을 수 있다.” (연구참여자 D)

“기본 라운드넥 가디건이라서 간절기용 외투로 입기도 하고 단독으로 입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들이 해당 의복을 오래 입은 이유에서 Lee et al.(2007)의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경향 중 영원한 스타일(Timeless style)의 시대적 감각의 흐름을 타지 않으며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스타일과 단순한 실루엣, 차분한 모노톤 계열의 색감, 변형가능 디자인(Transformable design)의 여러 목적에 따라 변형가능한 다기능성의 특성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4) 연구참여자들이 구매 후 오래 안 입게 되는 의복 특징 오래 안 입게 되는 의복에 대한 응답으로는 유행하는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옷, 계획에 없는 충동성 구매, 착용감이 불편한 옷, 소재적인 측면에서 옷의 늘어짐, 보풀, 섹바렘 등의 좋지 않은 품질의 소재를 가지고 있었다.

구매 후 오래 안 입게 되는 의복의 특징은 그 당시 유행하는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옷으로 유행에 치우친 과한 디자인과 색깔의 옷은 한두 번 입고 안 입게 된다고 하였다. 유행하는 당시에는 예뻐서 손이 자주 가지만 유행이 지나면 너무 과하고 촌스러워 보인다 하였다. 또한 평소 본인이 선호하던 브랜드의 과한 세일, ‘1+1’ 등 다양한 판매 전략에 혹해 구매에 이끌리고 이러한 구매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여 계획에 없는 충동성 구매를 하였다. 현실로 와보니, 티셔츠에 레이스가 심하게 달려있어 일상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착용감이 불편한 옷은 디자인, 소재, 색깔 등이 아무리 훌륭해도 착용하고 활동하기에 불편해서 오래 안 입게 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옷의 늘어짐, 보풀, 섹바렘 등의 문제가 있으면 입으면 입수록 소재적인 측면에서 계속 해질수록 인해 오래 착용할 수 없게 되었다.

“유행하는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옷이다. 유행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F)

“디자인이나 컬러가 과하거나 반짝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이다. 스카잔 같은. 유행하는 당시에는 이뻐서 자주 손이 가지만 유행이 지나면 너무 과하고 촌스러워 보인다.” (연구참여자 A)

“유행에 치우친 디자인과 색이 튀는 옷은 한 두 번 입고 안 입는 것 같다.” (연구참여자 B)

“게스 티셔츠인데 레이스가 심하게 달려 있어서 입고 나간 적이 한번도 없다. 게스 브랜드라는 이름과 60% 관한 활인을 해서 사버렸다. 현실을 와보니 일상복이 절대 될 수 없는 옷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E)

“옷이 늘어남과 보풀이다. 색바랜 요소가 있으면 오래 안 입게 된다.” (연구참여자 D)

참여자들의 응답은 Kim(2018)이 지속가능한 의복소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복 구매 전,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고 구매 시에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의복을 하나의 자원으로 여기고 패션 소비에 충동적이지 아닌 의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 또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내놓는 목표와 함께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인지를 고려하는 제품이 디자인되어야 한다(Nam, 2010).

(5) 의복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이 실천한 방법 연구참여자들이 응답한 가장 핵심 개념은 의류에 적합한 보관법과 세탁법, 깨끗한 착용법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본인 스타일에 어울리도록 옷 수선, 유행보다는 본인의 체형에 잘 맞는 의복의 선택, 고품질의 소재, 변형가능한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보관법은 옷장에 층별 세거약, 제습제 등을 배치하여 세균과 습기 관리를 중요시하였다. 또한 변형되지 않도록 착용 후 스팀 다리미로 형태 복원을 하거나 옷걸이에 걸어 두고 가방, 신발 안에 속지를 넣어 형태왜곡을 방지하였다. 다른 의류의 경우 박스에 압축하여 보관하지 않고 옷걸이에 사계절 내내 보관하여 관리하였다. 부피가 큰 아우터를 제외한 상·하의류는 옷 사이에 신문지를 넣고 옷을 개서 박스에 보관하였다. 가족은 마른 천이나 전용 크립으로 잘 닦아 습하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의류에 적합한 올바른 보관법을 실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세탁법에는 의류의 형태 및 색상을 안전하게 세탁할 수 있는 중성세제로 손 빨래를 하거나 울 소재는 드라이클리닝 하여 옷의 켈리터를 유지하고 아우터들은 계절이 끝나면 항상 옷장에 넣기 전에 드라이클리닝 후 보관한다고 하였다. 쉽게 해결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한 옷은 자연건조를 하며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건조기의 열로 인해 옷이 수축되고 마모되어 빠르게 품질이 떨어짐으로 의류에 적합한 세탁과 건조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소재의 특성을 무시하고 세탁을 했다가 버려진 옷이 수도룩하여 최대한 케어 라벨을 준수하여 세탁하고 있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의류에 적합한 올바른 세탁법과 건조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착용법에는 옷이 더러워질 만한 상황을 피하고 두 세번 착용 후 세탁을 하려 한다고 하였다. 깨끗하게 착용하고 세탁을 덜 하는 것이 옷의 마모를 줄일 수 있으니 옷에 오염

이 덜 묻도록 주의하였다. 옷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여 세탁을 덜 함으로서 의류의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외로 의복을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오래되고 안 입는 긴 기장의 바지를 짧은 기장의 바지로 수선해 입었고 유행에 치우치지보다는 본인의 체형에 잘 맞는 의복을 선택하였다. 또한 세탁이나 오염으로부터 유지관리가 편한 소재를 선택하고 우선적으로 좋은 품질의 소재를 추구하였다. 더불어 아이템에 맞는 혼용물과 이상적인 소재 배합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호에 맞게 형태 변형이 가능한 디자인의 옷을 구매해서 다양하게 활용하여 입을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변형가능한 다기능성 디자인(예: 탈 부착 후드)을 말하였다.

3) 지속가능한 의류 디자인 목표를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 연구참여자들은 지속가능한 의류 디자인 목표를 위해 중요한 점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착용감이 편안한 옷, 견고한 소재, 변형가능한 다기능적 디자인, 지속가능한 섬유 소재 개발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 색깔, 무늬 등의 요소가 있으면 오래 보관만 하고 계속 입지는 못하였다. 착용감이 편안한 옷은 계속 입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하였다. 더불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풀, 늘어짐, 형태변형이 적은 고품질의 견고한 소재를 말하였다. 간편한 세탁 건조와 그 과정에서 소재의 해짐과 형태 변형이 적어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행 타지 않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이면 아무리 소재가 좋아도 유행하지 않는 색깔이나 무늬면 오래 보관만 하지, 계속 입지는 못할 것 같다.” (연구참여자 E)

“착용감이 편안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연구참여자 C)

“세탁기(일반/드럼), 손빨래, 건조기 등의 세탁 도구를 사용해서 간편히 빨고 입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재가 찢어져서 변형이 적고, 해지지 않고 또 입을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구참여자 D)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풀이나 늘어짐, 형태 변형이 없는 소재의 사용이다.” (연구참여자 A)

“오래 지속되는 디자인이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품질 좋은 소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B)

또한 재가공하는 자원적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상황에 맞게 변형가능한 다기능 디자인이 필요하였다. 유아동복의 경우 사이즈 가감이 가능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약간의 하자가 있는 품질의 소재나 제품의 경우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여 교도소, 공공기관 등에서 착용할 수 있는 유니폼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섬유 소재 개발의 필요성과 소비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바람직하며 효율적인 소비문화를 실현하는 행동을 말하였다. 선행연구 Koh and Lee(2020)의 주장과 같이 향후 지속가능한 패션의 소비 성장을 위해 패션기업은 제품 수명주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순환패션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혁신의 변화를 진정성 있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는 트렌드 지향의 소비와 과잉소비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한 소재와 제품의 올바른 관리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생산과정에 관심을 가져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행동의 습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 재가공하는 자원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변형가능한 디자인이다. 예로 유아동복에서 사이즈 가감이 가능한 디자인 유니폼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 예로 공공기관, 교도소 등.” (연구참여자 C)

“지속가능한 섬유 소재 개발이 필요하고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소비자의 실천과 행동에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F)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과 소재의 내구성을 말하였다. 일반인 연구참여자(A, D, E)의 경우 답변의 폭이 소재측면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의류 전문직 종사자(B, C, F)들은 품질, 재가공, 변형가능한 다기능성, 섬유 소재 개발, 소비자 교육과 바람직한 소비문화 등 지속가능한 의류 디자인에 대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2. 2차 인터뷰

1차 인터뷰를 마치고, 5일 이후 2차 인터뷰를 진행하여 본인들이 오래 입은 의복의 사진과 그 이유를 제안했다. 인터뷰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의 오래 착용한 의복의 디자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표 안에 있는 의복 사진들은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직접 받은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제 오래 입은 의복의 사진을 제안했고 그 의복을 오래 입은 이유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을 분석하여 단순한 디자인, 견고한 소재, 감성적 디자인이라는 상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1) 단순한 디자인

단순한 디자인은 베이직한 디자인, 여유로운 핏, 본인 체형에 잘 맞음, 무난한 색깔, 다양한 스타일 연출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단순한 디자인과 관련된 어휘는 Table 3와 같다.

연구참여자들이 실제 오래 착용한 의복에서 솔리드 색깔의 기본 라운드 티셔츠는 트렌드가 변해도 영향을 안 받고 여러 트렌드에도 여전히 필요한 아이템이라 하였다. 과한 디자인 요소가 없는 기본 라운드 가디건은 간절기용 외투로 입기도 하고 단독으로도 착용하였다. 또한 니트 스웨터는 기본 디자인으로 과하지 않은 메쉬 조직과 꽃잎 자수가 좋다고 하였다. 단순한 디자인은 트렌드에 영향을 안 받고 개성 있지만 과하지 않은 베이직한 디자인 요소를 나타냈다.





여유로운 오버핏 코트는 그 당시에는 너무 큰 것 같아 어색했지만 과장된 어깨나 실루엣 트렌드가 점점 강세 되어서 지금 입어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라 하였고 활동성 좋은 편안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본인 체형에 잘 맞는 미디 기장의 코트는 적당한 품으로 캐주얼하면서 단정하게 착용 가능하였다. 바지는 본인 체형에 잘 맞고 적당한 품의 일자핏으로 체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핏이라 하였다. 베이직 라운드 티셔츠는 같은 옷이라도 사이즈는 신체에 딱 맞는 핏과 넉넉한 핏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본인 체형에 잘 맞고 몸에 핏되지 않는 여유로운 품의 의복은 본인의 체형을 보기 좋게 해주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인해 오래 착용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실제로 오래 입은 의복의 색깔은 대체로 강렬한 색깔을 제외한 과하지 않은 그레이, 톤 다운된 와인, 베이지, 짙은 네이비, 블랙의 무난한 색깔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Design that Appear in the Interviewee's Long-wearing Clothes

Interviewees	Clothing Photo	Why Wear It for A Long Time (Wear Period) / (Material Mixing Ratio)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Design
A	 <p>Figure 3. <i>Pants</i> (taken by authors)</p>	<p>(6 years / Too old to chec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fits my body shape well and goes well with any outfit. - A design that does not follow the fashion trend and is not overdone. - A fit that can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body shape with a suitable straight fit. 	<p>Basic design, Relaxed fit, Suitable for a variety of styles, Black color</p>
B	 <p>Figure 4. <i>Cardigan</i> (taken by authors)</p>	<p>(7 years / Cotton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e is no excessive design element. - It is made of 100% cotton, so it is often worn for a long time because lint does not form well and does not wear out. - It's a basic round cardigan, so I wear it as a change of seasons coat or alone. 	<p>Basic design, Sturdy material, Suitable for a variety of styles, Gray color</p>
C	 <p>Figure 5. <i>Rider Jacket</i> (taken by authors)</p>	<p>(8 years / Cowhide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like the feeling that the color, wrinkles, texture, and fit change naturally over time. - It's a gift from a precious person, so I wear it with attachment. 	<p>Basic design, Sturdy material, Emotional design, Suitable for a variety of styles, Black color</p>
C	 <p>Figure 6. <i>Coat</i> (taken by authors)</p>	<p>(6 years / Wool blend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 that time, it was awkward because the silhouette seemed too big, but now the silhouette trend such as exaggerated shoulders is getting stronger, so it is not a bad design to wear now. - It is made of wool blend material with less peeling and durable, so it is worn for a long time. - My parents bought it for me, so I wear it preciously. 	<p>Oversized fit, Basic design, Sturdy material, Emotional design, Gray color</p>
D	 <p>Figure 7. <i>Coat</i> (taken by authors)</p>	<p>(Over 20 years / Cotton polyester blend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inherited my mother's clothes. - There is no discoloration or crease of the material. - It has a strong durability that has never been repaired. - I can wear it casually and neatly with the length and width that fit my body type. 	<p>Emotional design, Sturdy material High sewing durability, Wine color</p>

Table 2. Continued

Interviewees	Clothing Photo	Why Wear It for A Long Time (Wear Period) / (Material Mixing Ratio)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Design
D	 Figure 8. <i>Knit Pullover</i> (taken by authors)	(Over 20 years / Cotton 100%) - I inherited my mother's clothes. - I wear it as a daily wear or as a beach fashion. - Non-excessive knit structure and petal embroidery are good. - Timeless design and durable materials.	Timeless design, Sturdy material, Emotional design, Suitable for a variety of styles, Beige color
E	 Figure 9. <i>Jeans</i> (taken by authors)	(11 years / Cotton polyester blended) - It's a timeless basic straight fit. - Comfortable to wear for activities. - It is easy to coordinate because it goes well with various tops such as T-shirts and shirts. - It has a strong durability that does not wear out.	Timeless design, Basic design, Sturdy material, Suitable for a variety of styles, Dark blue color
E	 Figure 10. <i>Jacket</i> (taken by authors)	(10 years / Rayon polyester blended) - I bought it for an interview in my early 20s. - I can't throw away my clothes because I have a precious memory of being excited and nervous during the first interview. - The clothes are short, out of fashion, and the size is small, so I'm in good condition, but I can't wear it now. - The quality of the clothes is good, so I think I'll donate it later.	Emotional design, Black color
F	 Figure 11. <i>T-shirt</i> (taken by authors)	(5 years / Cotton 100%) - It is a solid-colored basic round T-shirt that is still needed in various trends without being affected even if the trend changes. - Even if it's the same clothes, there's a perfect fit and a loose fit. - Easy to wash and care for clothes.	Basic design, Clothes that fit one's body shape, Material that is easy to wash and manage, Black color

니트는 민소매를 입고 그 위에 레이어드해서 일상복과 비치 패션으로 착용하였고 티셔츠, 셔츠 등 다양한 상의에 잘 어울려서 코디하기 편하다고 하였다. 어떠한 코디에도 무난하게 어울리는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였다.

2) 견고한 소재

견고한 소재와 관련된 어휘를 분류 분석하여 견고한 소재, 세탁관리 용이, 천연 소재가 지닌 자연스러운 멋스러움을 도

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견고한 소재와 관련된 어휘는 Table 4와 같다.

견고한 소재는 보풀이 잘 일어나지 않고 쉽게 해지지 않기 오래 착용할 수 있었다. 울 혼방 소재의 코트는 오랜 착용 후에도 필링이 적고 견고하였다. 면 혼방 소재의 코트는 쉽게 해지지 않는 고품질의 소재로 변색과 소재 구김이 적었다. 또한 한 번도 수선한 적 없는 튼튼한 봉제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고품질의 소재로 튼튼하게 봉제된 의복은

Table 3. Vocabulary Related to Simple Designs

Simple Design	
Basic design with few trendy elements	'It is a basic round T-shirt with solid color, which is not affected by the change of trend and is still necessary for various trends.' 'It is a basic round cardigan without excessive design elements. Therefore, it is worn as a change of seasons coat or alone.' 'The non-excessive knit structure and petal embroidery are good.' 'It's a design with unique details that aren't too much.' 'It has timeless designs and a suitable straight fit.'
Relaxed fit and comfortable to wear	'At that time, it was awkward because it seemed too big, but the trend of exaggerated shoulder silhouette is getting stronger, so it's not a bad design to wear now.' 'It's comfortable to wear during activities.'
Fits my body shape well	'It can be worn casually and neatly with a medium length and appropriate width that fits my body type.' 'It fits well with my body shape and can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my body shape.' 'Even if it's the same clothes, there's a perfect fit and a loose fit.'
Plain color	'gray / toned-down wine / beige / dark navy / black color'
Create a variety of styles	'It goes well with any outfit.' 'Layered and worn as daily wear and beach fashion.' 'It is easy to coordinate because it goes well with various tops such as T-shirts and shirts.'

Table 4. Vocabulary Related to Sturdy Materials

Sturdy Material	
Sturdy material	'Wear it often for a long time because the material does not lint easily and does not get easily damaged.' 'The material is not form lint easily and is not wear easily, so it can be worn for a long time.' 'It is made of wool blend material with less peeling and durable, so it is worn for a long time.' 'Made of high-quality material, it does not wear easily.' 'It has no discoloration or crease of the material, and has strong durability that has never been repaired.'
The natural beauty of natural materials	'It is cowhide, so I like the feeling that the color, wrinkles, texture, and fit change naturally over time.'
Easy to wash and care for clothes	'Easy to wash and care for clothes.'

해짐, 세탁 등으로 인한 형태나 소재 변형이 적어 오래 유지되고 수명이 길어짐으로 품질 좋은 소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Nam, 2010).

가죽 재킷은 100% 소가죽이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감과 구김, 질감, 핏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느낌이 좋다고

하였다. 사용자에게 따라 빈티지하면서 우아하게 에이징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 인위적인 가공 없이 천연소재가 지닌 자연스러운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라운드백 먼 티셔츠는 세탁과 건조가 편리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의복의 세탁과 건조, 보관, 관리가 간편한

소재를 선호하였고 모직, 니트 등 까다로운 소재에 있어서는 의복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1차 인터뷰에서 나타난 의복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실천한 방법으로 옷장에 제습제를 함께 넣거나 신문을 옷 사이에 넣어 습기를 막고 제거하면서 보관하고 세탁 전 케어라벨을 확인하여 권장 관리법을 주의하고 가족은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며 모든 의복은 주기적으로 옷장 문을 열어 통풍을 시켜주고 옷장에 보관하기 전 세균 오염으로 옷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는 등 의복에 적합한 올바른 방법을 실행하여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복의 수명에 있어 좋은 품질의 견고한 소재가 중요하지만 세탁, 보관, 착용 관리에서도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디자인, 소재, 컬러, 계절별로 세탁이나 관리 방법이 다르고 옷장 안에 두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복의 특성에 맞춰 관리를 해야 변형, 변색을 막을 수 있고 매해 옷장에서 다시 꺼내 착용할 때마다 최상의 상태로 의복을 오래 착용할 수 있다.

3) 감성적 디자인

감성적 디자인과 관련된 어휘를 분류 분석하여 소중한 사람의 선물, 소중한 기억의 향수, 본인 무드와 어울림으로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감성적 디자인과 관련된 어휘는 Table 5와 같다.

본인만의 소중한 의미가 담긴 옷은 심리적 교감을 통해 의복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감성적 지속 가능 패션디자인은 제품과 소비자 간의 관계성이 깊이 있게 통찰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제품 수명주기 연장을 위해 이 둘의 감성적 교감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세스 구축이 이

루어져야 한다(Lee, 2014).

소중한 사람의 선물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물건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사주셨거나 물려주신 옷,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라 애착을 가지고 착용하였다. 20대 초반 면접 복장으로 구매했던 재킷은 옷 상태가 좋지만 유행이 지난 짧은 기장감과 작은 사이즈로 인해 현재 착용하지는 못하였다. 첫 면접 때의 실결과 떨어진 소중한 기억이 있어 쉽게 버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옷 상태가 좋아서 추후 기부할 계획도 있다고 하였다. 이 재킷은 과거로부터의 소중한 기억을 지닌 향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의복을 현재 사이즈, 유행 등의 문제로 착용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음세대가 물려 입거나, 기부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또 다른 생명을 얻어 2차적인 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관점에서 '20대 초반 면접 복장으로 구매했던 재킷'을 지속가능한 의복 사례로 수용하였다.

본인의 무드와 어울림은 본인의 체형을 좋게 보여주고, 본인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을 나타냈다.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옷을 통해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삶의 한 방식으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본인의 신체적 사회적 자각이 분명해야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알 수 있다(Lee & Lee, 2018). 본인의 이미지를 정확히 알고 본인의 모습에서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을 파악하여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 체형을 좋게 보여주고, 본인의 무드와 잘 어울려 착용자가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 요소였다.

인터뷰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오래 착용한 의복을 통해 나

Table 5. Vocabulary Related to Emotional Designs

Emotional Design	
A gift from a precious person	'It's a gift from a precious person, so I wear it with attachment.' 'My parents bought it for me, so I wear it preciously.' 'I inherited my mother's clothes.'
Precious memories	'I bought it in my early 20s as an interview outfit. I can't throw away my clothes because I have a precious memory of excitement and nervousness during the first interview. The clothes are short, out of fashion, and the size is small, so I'm in good condition, but I can't wear it now. The quality of the clothes is good, so I think I'll donate it later.'
It goes well with my mood	'The clothes make me look good and go well with my atmosphere.'

탄란 디자인적 특성은 단순한 디자인, 견고한 소재, 감성적 디자인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단순한 디자인은 의복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과하지 않은 단순함을 추구한다. 착용 시 몸에 흐르는 듯한 여유로운 실루엣, 무난한 색상과 패턴, 본인 체형에 맞는 디자인이다. 둘째, 견고한 소재는 내구성이 높고 쉽게 해지지 않는 품질이다. 좋은 소재로 만든 의복이 오랜 사용을 할 수 있었다. 의류에 적합한 세탁법과 보관법, 착용법 또한 의복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요소였다. 셋째, 감성적 디자인은 본인의 무드와 체형에 어울리면서 내 감성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디자인이다. 아름다운 디자인, 부모님께 물려받은 옷, 소중한 지인에게 선물 받은 옷, 예전에 즐겨 입었으나 현재는 착용하지 못하더라도 버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의복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의복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특성은 본인의 체형과 무드에 어울리며 견고한 소재를 활용한 특별한 의미를 주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정리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후 MZ세대를 대상으로 '본인이 실제로 오래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특징'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적연구의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적용하여 의복의 수명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디자인적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디자인 개발의 기반연구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의복을 어떻게 오래 착용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의복의 수명과 관련된 실질적인 디자인 요소를 밝혀냈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패션브랜드의 사례연구와 기업과 디자이너의 역할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 선행연구로부터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특성을 친환경 소재 활용 디자인, 재생 가능한(리 디자인,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희소성을 지닌 수공예적 디자인, 유행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디자인, 변형 가능한 다기능성 디자인, 특별한 의미를 주는 감성적 디자인, 윤리적 슬로건 디자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품수명주기 관점에서 실제 생산과 유통, 폐기, 디자인적 측면도 고려하였지만 제품을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복의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복을 오래 착용하고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하려면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본인의 체형에 맞으며 의복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과하지 않은 단순한 디자인과 내구성이 높고 쉽게 해지지 않는 품질을 추구하는 견고한 소재, 내 감성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감성적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접근했을 때, 의복 수명 연장의 실질적인 요소를 반영한 디자인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특성 중 단순한 디자인, 견고한 소재, 감성적 디자인 세 가지를 밝혀내어 의복을 오랫동안 착용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여덟 가지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특성이 본 연구에서 밝힌 지속가능한 디자인 특성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실제로 의류를 착용하고 소비하는 사용자 입장에 초점을 두어 의복을 오랫동안 착용하게 만드는 특성을 밝혀내기 때문에 의류 전문가 입장에서 제품 수명주기의 전 과정 측면에서 어떻게 지속가능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의 특성을 도출한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차별점이 있다. 더불어 오래 지속되는 의류 디자인을 목표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유행을 타지 않으며 편안한 착용감, 가변적 다기능성 디자인, 형태 변형이 없고 쉽게 해지지 않는 견고한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 지속가능한 섬유 소재 개발의 필요성과 더불어 기업과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과 행동이 있었다. 소비자는 의복을 선택하여 구매, 사용, 폐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판단력과 구매를 하게 된다면 내구성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하고 더 이상 입지 않을 경우 재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등 의복을 하나의 자원으로 여기며 패션 소비에 충동적이지 아닌 의식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은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 및 폐기하는 전과정에서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생가능한 디자인, 에너지 절감, 공정무역,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인증마크 도입, 친환경적 인식 개선을 위한 소비자 교육 등 환경과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복을 착용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의복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요소를 도출한 연구이다. 소수의 연구참여자와 그들이 오래 착용한 의복의 수도 제한이 있기에 연구결과로 밝혀낸 지속가능한 디자인 특성을 일반화하기를 어렵지만, 착용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의복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자인 요소를 밝혀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개발의 기반 연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패션산업의 실무적 디자인 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

가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20~30대로 비슷한 스타일의 유사한 트렌드적 흐름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기에 선호하는 스타일과 연령대의 트렌드가 연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선호하는 디자인 스타일 별로 연구참여자들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연구대상을 한정된 소수의 연령과 직업, 인원으로 하였고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의복에서 나타난 유형의 특성을 일반화하기에 사례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더 공정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위해 다양한 가치관, 직업군, 연령층의 연구 대상과 이들이 오래 착용한 의복의 복종, 실루엣, 소재, 디자인, 디테일, 스트리텔링 등 각 아이템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의복 사례를 확대하여 후속연구를 실시한다면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패션디자인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의 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nn, M. H., & Joo, B. (2019). Categorization of ethic-oriented value in fashion design, *Journal of Fashion Design*, 19(2), 93-105. doi:10.18652/2019.19.2.6
- Choi, S., Jung, J., & Jung, S. W. (2016). Concept and procedure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21(1), 127-155. Retrieved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815651>
- Chun, E., Han, J., & Ko, E. (2018). Applying PLM approach for sustainable new product development in fashion industry. *Fashion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20(1), 34-49. doi:10.5805/SFTI.2018.20.1.34
- Du, Y. Y., & Kim, M. H. (2021). A study on the convergence re-design for sustainable fashion.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39(1), 103-113. doi:10.17548/ksaf.2021.01.30.103
- Fair Trade Commission[FTC]. (2020, November 13).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Average useful life by item]. Retrieved June 23, 2022, from http://www.cleaning.or.kr/index.php?mid=page_wQXi64&document_srl=412
- Jeoung, S. Y. (2011). *A study on the ethical fashion in Martin Margela's wor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D. M. (2014, July 7). 의복의 수명 [The life of a garment]. *daejonilbo*. Retrieved July 2, 2022, from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5131>
- Karell, E., & Niinimäki, K. (2020). A mixed-method study of design practices and designers' roles in sustainable-minded clothing companies. *Sustainability*, 12(11), 4680. doi:10.3390/su12114680
- Kcc webzine. (2021). 가치·신념을 소비하는 MZ세대 소비 이야기 [The consumption story of the MZ generation who consumes values and beliefs]. Retrieved June 15, 2022, from <https://kcc.newsstory.com/pages/story/MM/cont?menuId=40300&rawid=508819&svzVol=340>
- Kim, H. J., & Na, H. S. (2015). A case study on the sustainable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3(3), 53-68. doi:10.18652/2015.13.3.4
- Kim, I. (2018). *A study on the clothing sustainability of focused on us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I. H. (2020). *Value and risk perception by circular fashion typ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Y., Park, A., & Kang, J. H. (2021). Exploring the difficulties and competencies to overcome in the early adolescent growth process recognized by experts in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7(5), 463-498. doi:10.24159/joec.2021.27.5.463.
- Kim, Y. (2002). The 'Be slow' movement and its impact on the current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2(6), 165-179. Retrieved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74785>
- Koh, A., & Lee, J. S. (2020). Sustainable fashion consumption in the Post-COVID-19 er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1(5), 1-17. doi:10.35736/JCS.31.5.1
- Kook, H. (2014). *A study of sustainable zero-waste fashion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KCCI]. (2022). MZ세대가 바라보는 ESG경영과 기업인식 조사 [ESG management and corporate awareness survey from the MZ generation perspective]. Retrieved July 27, 2023, From [https://www.korcham.net/new_pdf/target/\(4%EC%9B%944%EC%9D%BC%EC%9E%90%20%EC%A1%B0%EA%B0%84\)MZ%EC%84%B8%EB%8C%80%EA%B0%80%20%EB%B0%94%EB%9D%BC%EB%B3%B4%EB%8A%94%20ESG%EA%B2%BD%EC%98%81%EA%B3%BC%20%EA%B8%B0%EC%97%85%EC%9D%B8%EC%8B%9D%20%EC%A1%B0%EC%82%A.C.pdf](https://www.korcham.net/new_pdf/target/(4%EC%9B%944%EC%9D%BC%EC%9E%90%20%EC%A1%B0%EA%B0%84)MZ%EC%84%B8%EB%8C%80%EA%B0%80%20%EB%B0%94%EB%9D%BC%EB%B3%B4%EB%8A%94%20ESG%EA%B2%BD%EC%98%81%EA%B3%BC%20%EA%B8%B0%EC%97%85%EC%9D%B8%EC%8B%9D%20%EC%A1%B0%EC%82%A.C.pdf)
- Kwak, S. M. (2021, April 30). 파타고니아, RWS 인증 울로 가능성 아이템 선보임 [Patagonia, introducing RWS-certified wool functional items]. *Fashionbiz*. Retrieved June 20, 2022, from https://www.fashionbiz.co.kr/article/view.asp?cate=1&sub_num=22&idx=184224
- Lee, G., & Lee, Y. (2018). An exploratory study on defining the concept of 'Fashion Sense' to identify competenc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2(4), 639–656. doi:10.5850/JKSCT.2018.42.4.639
- Lee, J., Ahn, J., Kim, R., & Seo, I. (2013). Guidelines for a sustainable fashion design process from the point of LC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7(8), 1044–1059. doi:10.5850/JKSCT.2013.37.8.1044
- Lee, W. H. (2021, April 22). 리바이스, 글로벌 지속가능 캠페인 화제 [Levi's, Global sustainability campaign topic]. *Fashionbiz*. Retrieved July 14, 2022, from https://www.fashionbiz.co.kr/article/view.asp?cate=1&sub_num=22&idx=184054
- Lee, Y., Lee, H., & Park, J. (2007). Sustainable slow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1), 21–32. doi:10.5850/JKSCT.2007.31.1.021
- Lee, Y. (2014). Sustainability and emotional design in fashio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45, 321–330. doi:10.21326/ksdt.2014..45.029
- Michelle, A. (2019, September 18). 글로벌 패션 업계, 환경 보존형 의류산업 협정 체결 [Global fashion industry,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environment-preserving clothing industry]. *Apparelnews*. Retrieved July 13, 2022, from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78369
- McFall-Johnsen, M. (2020, January 31). 이러한 사실들은 패션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These facts show how unsustainable the fashion industry is]. *WORLD ECONOMIC FORUM*. Retrieved June 20, 2022, from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1/fashion-industry-carbon-unustainable-environment-pollution/>
- Nam, H. N. (2010). A study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Journal of Fashion Design*, 10(2), 53–68. Retrieved from https://www.ksfd.co.kr/neowiz/board/up_files/files_1/2010_vol10no2_04_nhn.pdf
- Oh, K. H. (2005). A study on sustainable design in the view of ecological aesthetics.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11, 287–300. Retrieved from http://www.detra.org/down/html_date/%EC%98%A4%EA%B2%BD%ED%98%9C.pdf
- Oh, Y. J. (2021). *The influence of sustainable fashion brands' brand authenticity on purchase intention mediated by brand trus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H., & Kim, K. H. (2018). A study on fashion design for up-cycling design cas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16(1), 44–55.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2321007>
- The Seoul Institute[TSI]. (2020). *지구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패션의 확산소비 확산* [Spread of good consumption of sustainable fashion for the global environment] (TSI Publication No. 2019–CR–07). Retrieved June 17, 2022, From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19-16%20%EC%9D%B4%EB%B3%91%EA%B8%B8.%EC%A7%80%EA%B5%AC%ED%99%98%EA%B2%BD%EC%9D%84%20%EC%9C%84%ED%95%9C%20%EC%A7%80%EC%86%8D%EA%B0%80%EB%8A%A5%ED%95%9C%20%ED%8C%A8%EC%85%98%EC%9D%98%20%EC%B0%A9%ED%95%9C>

C%EC%86%8C%EB%B9%84%20%ED%99%95%EC%82%B0.pdf

University Tomorrow Research Laboratory for the Twenties. (2021).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2* [Millennial-Z generation trend 2022]. Seoul, Korea: Wisdomhouse.

Why recycling clothes is difficult. (2020, July 19). *BBC news*. Retrieved August 14, 2022, from <https://www.bbc.com/korean/53461066>

Yoo, H. S. (2012). Ethical fashion in the fashion industry : Focusing on the actualization of sustainable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2(2), 39-57. Retrieved from https://www.ksfd.co.kr/neowiz/board/up_files/files_1/2012_vol12no2_03_yhs.pdf

Yoo, K., Jeong, J., Kim, Y., & Kim, H.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2nd ed.). Seoul, Korea: Parkyoungbook.

Received (June 28, 2023)

Revised (July 26, 2023)

Accepted (August 18, 2023)